

This file has been cleaned of potential threats.

If you confirm that the file is coming from a trusted source, you can send the following SHA-256 hash value to your admin for the original file.

60792b421f7d68ee6fc1f1058f1741759d72154229358482f4caa6097335dab4

To view the reconstructed contents, please SCROLL DOWN to next page.

■ 주요 뉴스: ECB, 자산매입 속도를 완만히 늦추기로 결정. 기준금리는 0%로 동결

- 미국 연준의 주요 인사, 연내 테이퍼링 시행이 가능
- 미국 9월 1주차 신규실업급여청구건수, 31만건으로 코로나 19 이후 최저 수준
- 이탈리아 7월 은행권 기업대출 증가율, 17개월래 최저 수준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테이퍼링 우려와 ECB 통화정책회의 등이 영향

주가 하락[-0.5%], 달러화 약세[-0.1%], 금리 하락[-4bp]

- 주가: 미국 S&P500 지수는 테이퍼링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가능성 등이 반영
유로 Stoxx 600 지수는 ECB 통화정책회의가 예상에 부합하면서 하락폭 축소
- 환율: 달러화지수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의 하락 등이 배경
유로화와 엔화가치는 각각 0.1%, 0.5%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ECB 통화정책회의의 영향 등이 주요 요인
독일은 ECB가 자산매입 축소에 신중하다는 평가 등으로 4bp 하락

※ 원/달러 1M NDF환율(1170.0원, +0.2원) 포함, 한국 CDS 포함

		9/9일	9/8일	전일대비			9/9일	9/8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4,493.3	4,514.1	-0.46%	국채 금리 10y	미국	1.30%	1.34%	-4bp
	유럽	467.57	467.87	-0.06%		독일	-0.36%	-0.32%	-4bp
	중국	3,693.1	3,675.2	0.49%	CDS 5y	한국	18bp	18bp	0bp
	일본	30,008	30,181	-0.57%		중국	33bp	33bp	0bp
	한국	3,114.7	3,163.0	-1.53%	위험 지표	EMBI+	-	350	-
환율	달러지수	92.52	92.65	-0.14%		VIX	18.80	17.96	4.68%
	유로화	1.1825	1.1816	0.08%		WTI유	68.14	69.30	-1.67%
	엔화	109.72	110.25	0.48%	원자재	구리	428.0	423.2	1.13%
	위안화	6.4554	6.4617	0.10%		금	1,794.6	1,789.3	0.30%
	원화	1,169.2	1,166.7	-0.21%					

주: 주가는 미국 S&P500, 유럽 Stoxx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 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ECB, 자산매입 속도를 완만히 늦추기로 결정. 기준금리는 0%로 동결

- 통화정책회의를 통해 예금금리와 한계 대출금리도 각각 현행 0.0%와 -0.5%를 유지. 1조8500억유로 규모의 긴급자산매입프로그램(PEPP)을 적어도 2022년 3월까지 시행하고, 매입속도는 이전 6개월보다 완만하게 낮출 것이라고 발표
- 라가르드 총재는 이번 결정이 만장일치로 이루어졌으며, 자산매입 속도를 낮춘 것은 테이퍼링이 아니라 PEPP를 재조정하는 것이라고 언급. 금년의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각각 5.0%, 2.2%로 제시하여 이전(4.6%, 1.9%)에 비해 모두 상향
- PIMCO의 Konstantin Veit는 ECB가 PEPP를 2022년 내에 종료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후에 기존의 통상적인 자산매입프로그램(APP)을 확대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간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지속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평가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연준의 주요 인사, 연내 테이퍼링 시행이 가능

- 애틀랜타 연은 보스틱 총재는 최근 경제지표들이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기에 테이퍼링 시기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금년 내 시행이 적절하다고 발언. 다만 9월 FOMC에서 테이퍼링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 보우먼 이사도 8월 고용통계가 부진한 결과를 나타냈지만 경제여건은 전반적으로 견조하기에 연내 테이퍼링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 노동시장은 최대고용이라는 정책 목표에 근접하고 있다고 부연
- 한편 시카고 연은 에반스 총재는 미국 경제가 성장을 지속하고 있지만 아직 위기를 벗어난 것은 아니며 공급망 차질, 필요 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진단. 또한 델타 변이의 여파 등으로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을 피력

■ 미국 9월 1주차 신규실업급여청구건수, 31만건으로 코로나 19 이후 최저 수준

- 노동부, 이번 결과는 시장 예상치(33.5만건)를 하회. 하지만 Wells Fargo의 Sarah House는 고용주들이 신규 필요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델타 변이 등의 영향에도 기존 직원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

■ G7 재무장관, 글로벌 법인세 개혁의 진전을 추진할 방침

- 온라인 회의에서 10월 G20 정상회의 전에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전진해야 한다고 강조. 미국의 옐런 재무장관은 그 동안의 글로벌 법인세 합의 내용을 신속하게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주장

■ 이탈리아 7월 은행권 기업대출 증가율, 17개월래 최저 수준

- 같은 달 기업대출은 전년동월비 1.7% 늘어 전월(3.8%)에 비해 하락. 이는 기업의 코로나 19 여파를 완화시킬 수 있는 완충장치가 약해질 수 있다는 의미

■ 중국 8월 생산자물가, 전년동월비 9.5% 올라 13년 만에 최고 수준

- 통계국, 이번 결과는 시장 예상치(9.0%)를 상회했고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주요 요인. Capital Economics의 Julian Evans-Pritchard는 최근 주요 원자재 가격의 하락과 기저효과 소멸 등으로 생산자물가의 상승 지속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평가
- 한편 같은 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비 0.8% 올라 전월(1.0%) 및 예상치(1.0%)를 모두 하회. 코로나 19에 따른 서비스 부문 소비 약화 등이 주요 원인. HSBC의 Jing Liu는 경기부양을 위해 당국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

■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 경제는 양적완화 조치가 불필요한 단계에 근접

- 티프 맥클렘 총재는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결국은 경기부양을 위한 조치들을 축소할 시기가 오고 금리인상 전망도 갖게 될 것이라고 발언

■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

- 이번 결정은 최근 코로나 19 관련 제한조치들의 완화와 양호한 대외여건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 다만 향후 글로벌 경기가 당초 예상을 하회할 수 있다고 경고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9/9 현지시각 기준)

- 독일 7월 무역수지(억유로): 179, 6월(136), 예상치(131)

■ 주요 경제 이벤트(9/10 현지시각 기준)

- ECB 라가르드 총재 강연, 미국 8월 생산자물가, 독일 8월 소비자물가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투자자, 코로나 19 종식 기대 기반의 투자에 불확실성 가중 - WSI

(Investors Keep Waiting for the Re-Reopening)

- 올해 초 투자자들이 예상했던 가을 경 코로나 19 종식 기대와 달리, 델타 변이 확산으로 경제는 둔화. S&P500은 사상 최고치 근처에서 등락하고 있지만 펜데믹 이후 정상화 기대로 큰 폭 상승한 업종(항공, 오락, 식당 등)의 주가는 하락
- 백신접종 증가, 휴가시즌 종료, 코로나 19 확산·진정 주기 등 감안 시 델타 변이는 10월에 진정될 가능성. 하지만 개학 이후 학생 감염이 증가할 경우, 온라인 수업 재전환 및 부모들의 가정복귀로 이어지면서 경제 재개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우려
- 아울러 아동 백신 접종 승인 장기화, 백신 접종속도 둔화, 변종 바이러스 출현 가능성 및 과거 예측오류 사례 등은 정상화 시기 예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 미국 노동시장의 공급우위, 점차 소멸될 가능성 - 블룸버그

(Workers Have the Upper Hand on Wages — for Now)

- 미국 노동시장은 고용 기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취업하고자 하는 의사가 낮은 노동자의 비중이 높은 상황. Pew Research Center의 조사에 의하면, 62세 이후 고령자의 조기 은퇴비율이 높고, 자녀와 가정에 머물고자 하는 의사가 높은 편
- 하지만 저임금 노동자 중심의 고용 증가는 장기화되지 않을 소지. 코로나 19 이후 새로운 노동시장 여건으로 기업이 일정 수준 임금을 인상할 여지는 있으나, 인력을 기술로 대체하는 움직임 등으로 노동자 선택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

■ ECB, 자산매입프로그램의 선부른 중단은 곤란 - Financial Times

(ECB must reassure asset purchases will not end prematurely)

■ 미국 저금리 정크본드와 중국 부동산, 금융위기 직전(2007년) 분위기와 유사 - 블룸버그

(The Bond Market Is Giving Off a Real '2007' Vibe)

■ 코로나 19 백신의 전세계 접종, 유통구조 개혁 등 인프라 구축이 중요 - Financial Times

(When it comes to vaccinating the world, we must fix distribution)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228, E-mail ikyoon@kcif.or.kr